

<2011년 11월 6일 주일말씀>

너희 심령과 영이 살아나게 급히 기도하여라

본 문 요한계시록 3장 1-6절

* 11월 6일 주일말씀과 11월 9일 수요일말씀은 회개하고 기도하여 심령과 영이 살아나라는 말씀으로 성찬식 전에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영의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의 성찬을 온전히 예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기도와 회개로 11월 13일 주님의 성찬을 온전히 예비하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을 모두에게 전해 주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영이 살아나 주님과 교통하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 심령과 영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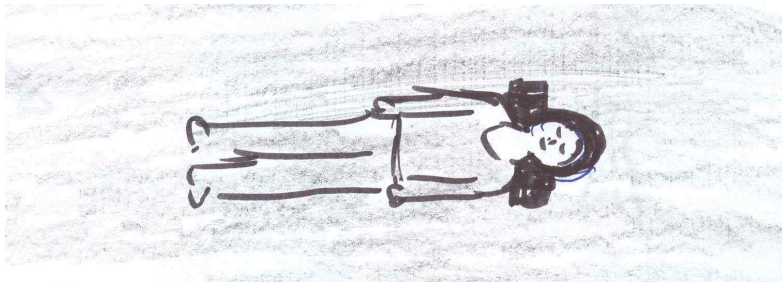
(*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들겠습니다.) <영상1> 마음과 영이 죽어 있는 자는 마치 육신이 잠을 자는 자와 같아서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주와 함께 행하지 못하여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과 영이 죽어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과 육성대로 합니다.

육의 영이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죽어 있으면 평소에도, 기도할 때도 주님의 생각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살아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에 주님의 생각이 자기 마음에 또렷하게 전해져 옵니다. 고로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차원 높은 방법과 생각과 행위들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고, 여실히 주님의 생각이 전달되어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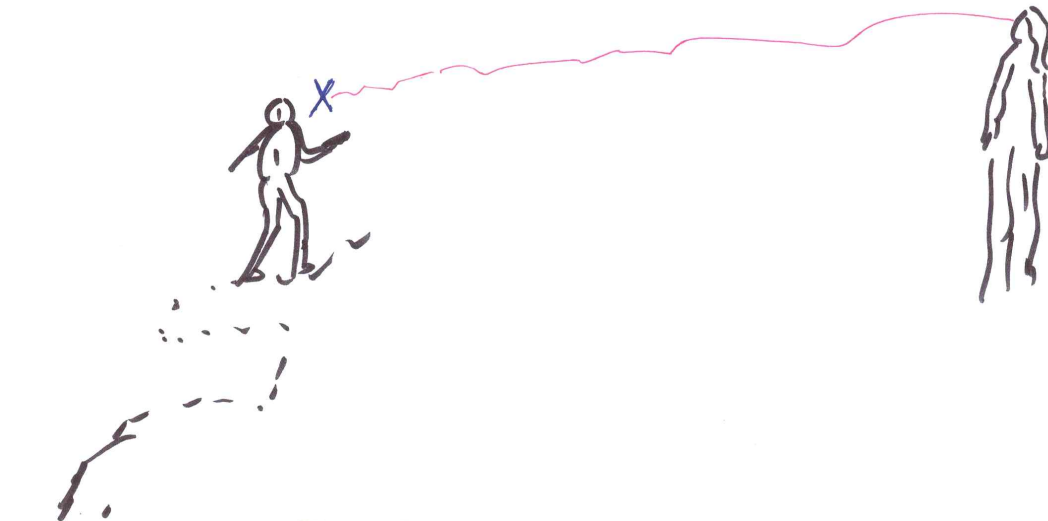
<영상1> * 설교 속도에 맞춰 영상 제작

① 마음과 영이 죽어 있는 자 = 육신이 죽어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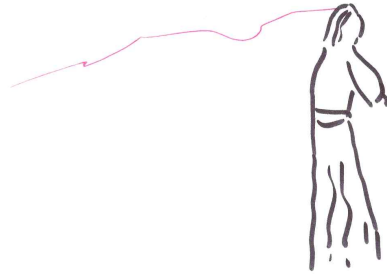
<자막> 마음과 영이 죽어 있는 자는 마치 육신이 잠을 자는 자와 같아서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주와 함께 행하지 못하여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② 주님과 안 통하고 자기 육성대로 행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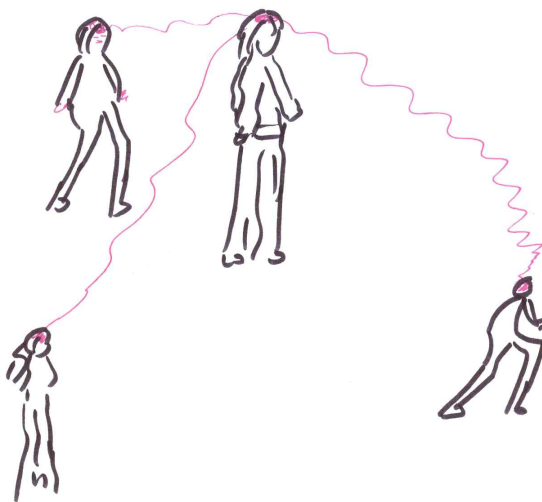
<자막> 마음과 영이 죽어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과 육성대로 합니다. 주와 함께 행하지 못합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③ 심령이 죽고 영이 죽은 자



<자막> 육의 영이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죽어 있으면 평소에도, 기도할 때도 주님의 생각이 오지 않습니다.

④ 마음과 영이 살아서 행하는 자



<자막> 마음과 생각이 살아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에 주님의 생각이 자기 마음에 또렷하게 전해져 옵니다. 고로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차원 높은 방법과 생각과 행위들이 자기 마음에 떠오르고, 여실히 주님의 생각이 전달되어 옵니다.

오늘은 선생이 나의 심령과 영을 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면서, 모두 선생과 같이 하여 심령과 영을 살리라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2> 이 말씀을 쓰는 날, 선생은 새벽기도를 하면서 섭리사와 세계 모두를 위해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 마음과 영을 위해서 2시간 동

안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과 영을 더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주님과 대화가 잘 안 되고 내 심령과 영이 죽어 있는 것 같으니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안 오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 이것은 내 심령과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상2 끝>

<영상2> * 설교 속도에 맞춰 영상 제작

움직이는 영상으로 설교 내용에 맞춰 영상 제작

<자막> 이 말씀을 쓰는 날, 선생은 새벽기도를 하면서 섭리사와 세계모두를 위해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 마음과 영을 위해서 2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과 영을 더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주님과 대화가 잘 안 되고 내 심령과 영이 죽어 있는 것 같으니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안 오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 이것은 내 심령과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나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섭리사 사람들이 선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하고 조금 하다가 마는 것 같으니 안 되겠다며 내가 나를 위해 깊이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들은 이런 격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네가 엄마 젖을 많이 먹으려면 네가 엄마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줘야 한다. 그래야 엄마가 그것을 먹고 젖이 많이 나와서 네가 충분히 먹을 수 있어.” 하니, 아기가 겨우 밥 몇 숟가락을 주는 격입니다. 그것 조금 먹고는 젖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밥을 한 그릇씩 줘야 젖이 계속 더 많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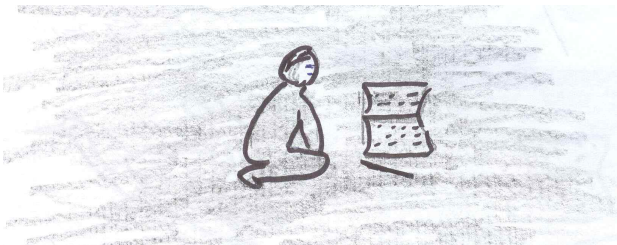
선생도 조금 하다가 마는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연속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차원 높게 받아서 전해 줍니다.

자기 기도도 깊이 못 하는 자들이 선생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선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지 않고서 신령한 말

씀의 젖만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에 굶어서 마음도 영혼도 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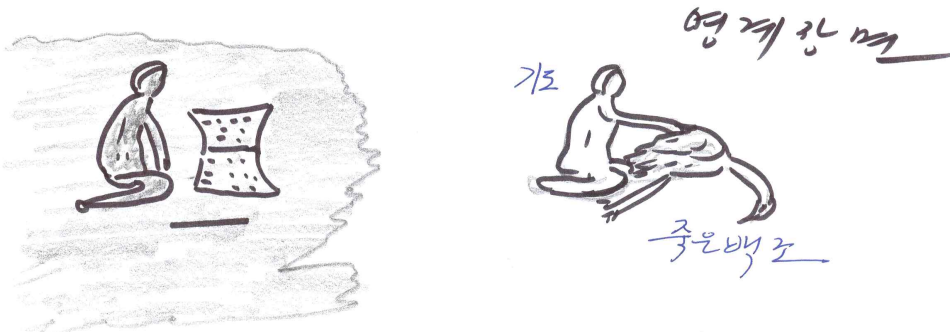
엄마가 많이 먹어야 젖이 많이 나서 아이를 먹일 수 있듯이, 선생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해 줘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서 모두에게 전해줄 수 있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충분하지 못함을 알고 이날 새벽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5시간씩 기도했는데, 이날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2시간을 뺐습니다.

내 마음과 영을 살려 달라고 깊이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니, 기도의 결과로 영이 살아나 영계의 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화면을 보면서 쪽~ 말씀을 듣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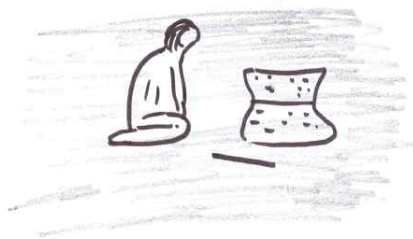
<영상3> 한 마리의 백조가 죽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조가 죽었다고만 하고 살리려 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선생이 이 백조를 살려야 한다고 하며 방에 들여놓으니, 백조의 몸 3분의 1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고 털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선생도 백조가 완전히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조를 잡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조가 꿈틀꿈틀했습니다. 결국 오랜 기도 끝에 살아났습니다. 백조가 살아나서 점점 커지더니 아주 하얀 백조가 됐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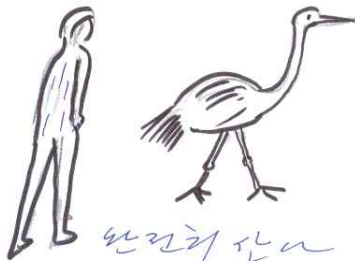
그리고 선생이 계속 영계를 다니고 있는데,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조가 점점 변하더니 예쁜 여자로 변하여 흰옷 입은 20대 젊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살이 통통하게 찼고, 짧은 치마를 입고 품을 재고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1. 기로 백조는 하나로 백조가
숨을 쉬며 살이 찼다



백조가 살이 찼다
기시한 백조

2.



백조가 살이
찌꺼내다 나는
영계에 라라라 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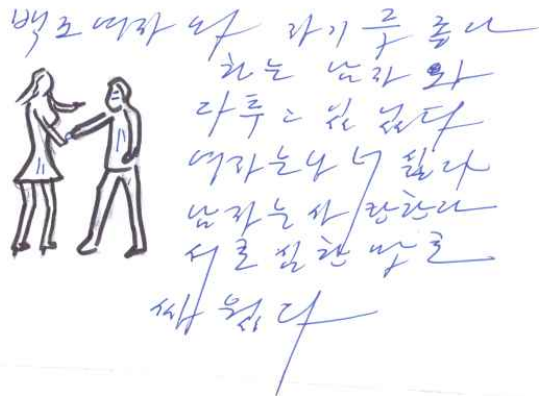
백조가 예뻐
여자
로 변해 버려
영계에 기꺼워
가고 싶었다

이 여인이 멋지게 품을 재고 가니 어떤 남자가 좋아서 쫓아다녔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 안 좋아해. 너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좋아하니?” 하면서 남자와 다뤘습니다. 그 남자는 억지로 여자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이에 여자는 거부했고, 둘이 씨름하듯이 서로 붙잡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뒤로 젖혔다가 엮어 젖혔다가 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자니 내 심정이 탔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센데 결국 여자가 남자를 넘겼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배를 누르고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면서 남자를 도왔습니다. 백조 여자는 남자를 일으켜더니 “너 좋아하는 사람 왔다. 봐라.” 하면서, 양손으로 그 여자와 남자의 머리를 하나씩 잡고 서로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좋아해라.” 하면서 두 머리통을 양손으로 맞대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의 머리와 여자의 머리가 붙어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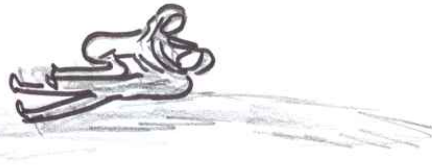
4.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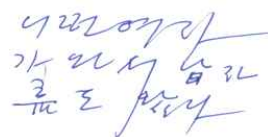
5.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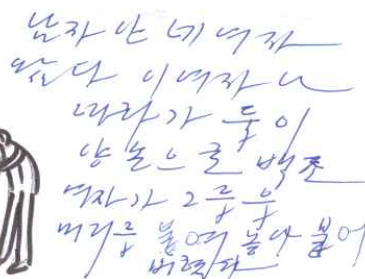
6.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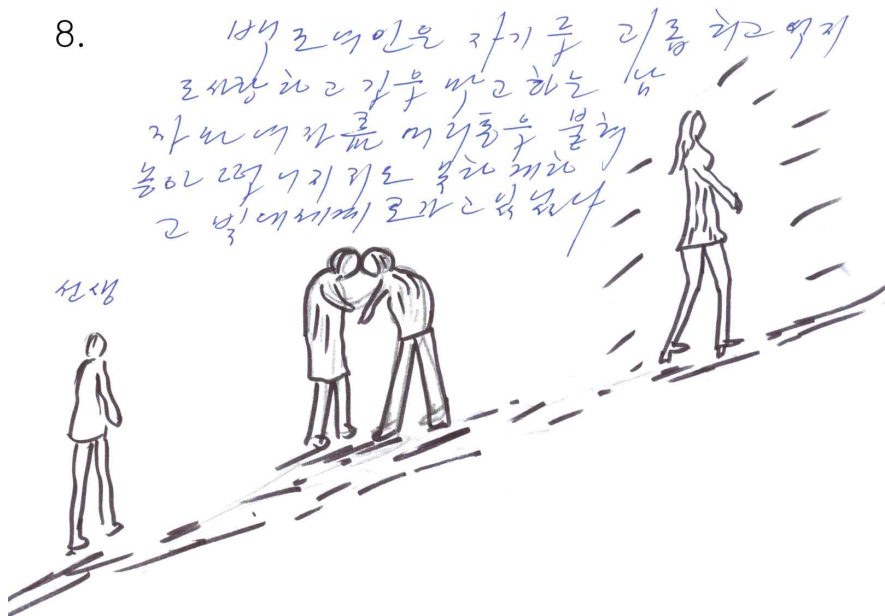


7.

선생



백조 여인은 자기를 괴롭히고 억지로 사랑하고 길을 막는 남자와 여자의 머리를 붙여 놓아 떨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짝은 따로 있어!” 하며 다른 빛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영상3 끝>



<영상3> * 설교 속도에 맞춰 영상 제작

움직이는 영상으로 설교 내용에 맞춰 영상 제작

(필요에 따라 중간 중간 설교 내용과 맞게 자막을 넣어 주기.)

(* 여기까지 선생이 내 심령과 영을 살려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보여 주신 영계의 한 장면을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쪽~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4> 장면이 사라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백조는 무엇을 말하는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조는 네 마음이다. 네 정신이다. 네 심령이다. 네 영이다. 네가 네 심령과 영혼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여 내가 살려 주었다. 백조가 살아난 것은 네 마음과 심령과 영이 살아난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네 심령과 영이 살아나니 사탄을 이기고 다스려 오히려 사탄에게 고통을 주고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 다시 교통하게 되었

다.”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생각이 연속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교통이 시작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 시작했고, 새벽 잠언이 계속해서 왔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인 모두 너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자기 심령과 영을 살리고 나와 같이 통하며 일하라고 하여라. 너에게 먼저 보이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모두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영상4 끝>

<영상4> * 설교 속도에 맞춰 영상 제작

① 주님께 묻는 선생님 모습

<자막> 장면이 사라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백조는 무엇을 말하는지 물었습니다.

② 영계의 한 장면이 다시 나온다.

(다음 주님 말씀에 맞게 설교 속도에 따라 제작) 백조가 살아나는 모습 / 선생님 백조 잡고 기도하시는 모습 / 백조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싸워 이기고 유유히 떠나는 모습

<자막> “백조는 네 마음이다. 네 정신이다. 네 심령이다. 네 영이다. 네가 네 심령과 영혼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여 내가 살려 주었다. 백조가 살아난 것은 네 마음과 심령과 영이 살아난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네 심령과 영이 살아나니 사탄을 이기고 다스려 오히려 사탄에게 고통을 주고 다시 빛 가운데로 나와 다시 교통하게 되었다.”

③ 초안 (예수님의 생각이 연속해서 오는 모습 : 위의 초안)

<자막> 그때부터 주님의 생각이 연속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교통이 시작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 시작했고, 새벽 잠언이 계속해서 왔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④ 섭리인들 기도하는 모습

<자막> “섭리인 모두 너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자기 심령과 영을 살리고 나와 같이 통하며 일하라고 하여라. 너에게 먼저 보이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모두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죽으면 할 일이 없고 지루하지만, 심령이 살아나면 내 육이 되니 밤낮으로 바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자기 심령과 마음과 정신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영을 살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과 영이 죽었어도 자기 육성으로 일을 합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이 죽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해도 자기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육의 마음과 영이 죽은 자는 마치 잠자는 자와 같습니다. 고로 기도해서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몇 시간, 며칠 동안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에 따라 죽어 있는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자기 심령과 영이 죽은 자는 기도해도 육적으로 합니다. 혹은 아예 기도를 안 하기도 합니다. 또 할 일이 없어 놀게 됩니다.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힘없이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일을 해도 자기 육성의 일을 합니다.

자기 심령과 영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여 살아난 자는 바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니 너무 바쁩니다. 주님이 여실히 함께하시고, 그 마음에 늘 말씀을 주시면 생생하게 깨닫고, 주님의 생각에 따라 쉽게 행하게 됩니다. 또 일을 할 때도 10배, 30배, 100배 쉽게 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5 끝>

<영상5> * 설교 속도에 맞추어 해당 영상 제작

① 심령과 영이 죽은 자 (하나하나 영상이 지나감)

<자막> 자기 심령과 영이 죽은 자는 기도해도 육적으로 합니다. / 혹은 아예 기도를 안 하기도 합니다. / 또 할 일이 없어 놀게 됩니다. /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 힘없이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 일을 해도 자기 육성의 일을 합니다.

② 심령과 영이 살아난 자 (하나하나 영상이 지나감)

<자막> 자기 심령과 영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여 살아난 자는 바쁩니다. / 주님의 손발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니 너무 바쁩니다. / 주님이 여실히 함께하시고, / 그 마음에 늘 말씀을 주시면 생생하게 깨닫고, / 주님의 생각에 따라 쉽게 행하게 됩니다. / 또 일을 할 때도 10배, 30배, 100배 쉽게 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나의 심령을 살려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 주신 것 같이 백조가 살아나서 변화되어 예쁜 여자가 되고, 여자는 자기 사랑을 빼앗아 가는 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살아나면 자기 사랑을 지키게 되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교통하니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살아나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 마음에 전달되어 바쁘게 행해집니다. 전기선이 끊어졌을 때 다시 연결하면 바로 불이 들어오듯이, 심령이 살아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세상 소리가 들려오듯이, 심령이 살아나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주님은 먼저 선생이 겪게 하시고 섭리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인들 모두가 살아나도록 너희 자신을 위해 너희의 심령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여라. 심령이 죽어 있으면 일을 해도 육적으로 하니 그만큼밖에 못 하고, 열심히 해도 곤고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안 오고, 능률도 안 오른다.” 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교역자들, 지도자들, 각 기관, 각 부서 지도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이 죽고, 심령이 죽고 정신이 죽고, 생각이 죽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주님과 같이 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하고 자기 주관으로 하니 일을 해도 힘들고, 일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은 “거기가 길이 아니다. 내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상6 끝>

고로 일주일씩 자기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여 부활시키고 살려야 됩니다. 먼저 심령을 살리고서 일을 해야 10배, 20배 하고 대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 심령이 살아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선생이 영계에서 본 것같이 주님께서 모든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상6> * 설교 속도에 맞추어 해당 영상 제작



<자막> (교역자들, 지도자들, 각 기관, 각 부서 지도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 자막에서 빼고 영상은 돌아간다.) 영이 죽고, 심령이 죽고 정신이 죽고, 생각이 죽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주님과 같이 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하고 자기 주관으로 하니 일을 해도 힘들고, 일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은 “거기가 길이 아니다. 내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 이 부분은 영상 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 옆에 자막 넣어 보여 주기.)

심령이 살아나서 행하면 주님과 사랑도 붙들고, 진리에도 붙들고, 일에도 붙어 붙어 할 일이 훨씬 보이고 생각나고 척척 행해집니다. 심령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성으로 인성으로 하면 공적도 육에서 끝나고, 따르는 자들도 힘이 없고, 자기 소망과 희망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심령을 살리고 행할 것을 행해야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영혼은 자기가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진정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살리고 나서 일을 해야 주님의 뜻대로 하여 이 한 해를 제대로 잘 매듭짓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더 깊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시 한 편을 읊겠습니다.

<백조가 됐다>

하늘 높이
날다 보니
어느새
나는
백조가 되었다

모두 밤낮
하늘 높이
날다 보면
나뿐 아니라
너희도
백조가 되리라

주님을 단상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겠습니다.

<영상7>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 화면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8> 마음, 생각, 정신, 심령, 영이 죽었다는 것은 나 예수와 영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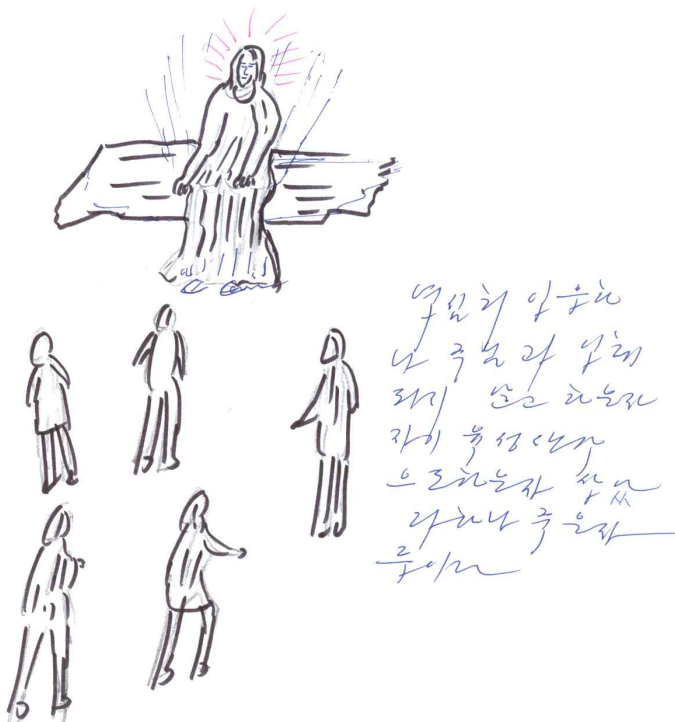
열심히 나의 일을 하지만, 심령이 죽어 나와 일체 되지 않고 나와 교통하지 못하고 자기 육성으로 행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영상8> * 설교 속도에 맞추어 해당 영상 제작

① 육은 살았으나 마음과 영이 죽은 자 ⇄ 예수님

<자막> 마음, 생각, 정신, 심령, 영이 죽었다는 것은 나 예수와 영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② 예수님은 홀로 두고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자들의 모습



(밑에 자막)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자막> 열심히 나의 일을 하지만, 심령이 죽어 나와 일체 되지 않고 나와 교통하지 못하고 자기 육성으로 행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너희는 너희 심령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와 너희가 영적으로 끊어졌어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일을 한다. 너희 생각과 육성으로 나 에수를 생각하며 나의 일을 한다. 심령이 죽었어도 자기 육성대로 나의 일을 하니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자들도 그를 보면 살았다고 생각한다. 고로 나 에수가 이를 두고 말하기를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한 것이다.

각 종교와 교파가 나 에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심령이 죽어 잠자는 자들이 많다. 고로 구시대인들은 나의 새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새 역사에 대해 죽은 자들이 되었다. 구역사에 속해서 자체로 산 자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새 역사 앞에는 죽은 자들이다. 잘못된 종교에 속하여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나 에수를 믿고 나에 대한 말을 하나 죽은 자들이다.

너희 각자는 너희 심령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심령이 산 자들은 밤낮으로 나 에수와 교통하고 매일 나 에수의 생각을 듣는다.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심령이 살아 있으면 나 에수가 설교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각자에게 해당되는 대로 깨달아져 각자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된다. 마치 선지자들의 뇌에 말씀의 불이 수시로 가듯, 심령이 살아 있는 자는 나 에수가 단상을 통해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 할 일을 깨닫고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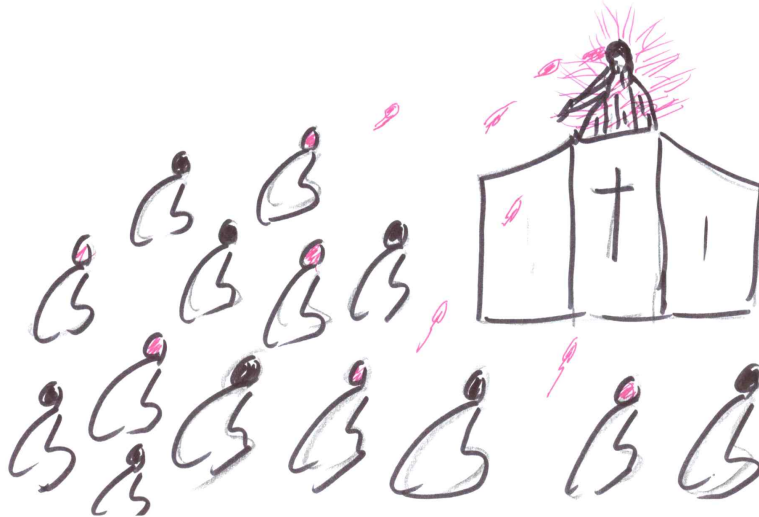
너희 ‘뇌’는 스마트폰과 같다고 생각하여라. 스마트폰은 소리도 나고 화면도 뜬다. 이와 같이 심령이 살아 있는 자에게는 나 에수가 영감을

주고 말하면 듣게 되고, 나 예수가 환상과 이상을 보내면 너희 뇌에 화면이 띄워져 보게 된다. 모두 살아나 이같이 나 예수와 대역사를 이루자.

<영상9 끝>

<영상9> * 설교 속도에 맞추어 해당 영상 제작

①



<자막> 심령이 산 자들은 밤낮으로 나 예수와 교통하고 매일 나 예수의 생각을 듣는다.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심령이 살아 있으면 나 예수가 설교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각자에게 해당되는 대로 깨달아져 각자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된다. 마치 선지자들의 뇌에 말씀의 불이 수시로 가듯, 심령이 살아 있는 자는 나 예수가 단상을 통해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 할 일을 깨닫고 안다.

② - 스마트 폰과 인간의 뇌를 한 화면에 넣기.

(밑에 자막) 스마트 폰 = 인간의 뇌

<자막> 너희 '뇌'는 스마트폰과 같다고 생각하여라.

- 스마트 폰에 소리도 나고 화면도 뜨는 모습

<자막> 스마트폰은 소리도 나고 화면도 뜬다.

- 초안



<자막> 이와 같이 심령이 살아 있는 자에게는 나 예수가 영감을 주고 말하면 듣게 되고, 나 예수가 환상과 이상을 보내면 너희 뇌에 화면이 띄워져 보게 된다. 모두 살아나 이같이 나 예수와 대역사를 이루자.

너희가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여라. 나 예수가 너희 선생을 통해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계시하여 너희 모두에게 내 말을 전했다. 심령이 살아나야 너희가 해야 될 엄청난 일들이 생각난다. 잠자는 자는 할 일이 생각나지 않듯이, 심령이 죽어 잠자는 자는 자기가 급히 할 일들과 사명의 일들이 생각나지 않고 나 예수가 영으로 말하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지 못한다.

심령이 죽으면 나 예수와의 교통이 끊어지고, 자기 육성과 자기 생각으로 행하면서 스스로 살아 있는 자같이 행한다. 나 예수와 같이 하는 것과 네 생각과 육성으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난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너희는 종들도 아니요, 아들들도 아니다. 너희는 나의 신부들이니 기도하여 너희 마음과 영혼을 살려라.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받라!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랑의 유혹과도 싸워 이기고, 나와 하나 되어 나의 재림을 온전히 맞는다.

땅에서 이루는 육신 휴거가 지금 진행 중인데, 심령이 죽어 있으면 너희가 잠자는 동안에 시대의 일이 끝나 버린다. 모두 시대의 일을 끝내고 돌아간 뒤에 잠에서 깨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도자들은 모두 살아나라! 산 자와 죽은 자는 여실히 표가 난다. 자신이 살아나 봐야 한다. 진실로 자기 심령과 영이 살아나기를 기도하여라. 심령과 영이 살아나고서 나의 일을 나와 함께 해야 세상을 이기고, 시대의 어떤 자들보다도 앞질러 뛰고 대역사를 이루게 된다. 심령과 영이 살아나야 나 예수가 각 부서와 기관과 교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때, 나의 말을 너희 마음에 받아 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과 심령과 영이 살아나야 내가 말하면 나의 말을 받고, 내가 능력을 보내면 나의 능력을 받아 나의 뜻대로 능히 행하여 대역사를 이루게 된다. 또한 심령과 영이 살아나서 행해야 많은 생명들이 밀려오고, 단상에서 말씀을 외칠 때 말씀의 능력이 나가고 성령의 불이 나가게 된다. 마음과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육적으로 행하면 열심히 하기는 하나, 나의 능력도 영력도 신령함도 나가지 않는다. 살아나야 나 예수가 밤낮 대화하고 범사에 사랑하여 너희가 신부로서 사명을 한다.

너희를 살리는 주 예수다. 살롬!

<영상10>

① 초안

<자막> 너희 마음과 정신과 심령과 영이 살아나야 나 예수가 능력을 보내면 받고 행하게 되고, 나 예수가 지혜와 구상을 보내면 받고 행하게 된다. 또한 나 예수가 사랑과 위로와 말씀과 방법을 보내면 그

대로 행하게 된다.



② 죽은 자는 사탄이 끌고 다니는 모습 / 산 자는 주님이 끌고 다니는 모습 / 산 자가 주님과 함께 뜻을 이루는 모습 / 예수님 인사
 <자막과 말씀> 심령과 영이 죽은 자는 사탄이 끌고 다닌다. / 심령과 영이 산 자는 나 예수가 데리고 다닌다. / 산 자는 그때그때 내가 해 주는 말씀을 받고 지혜롭게 내 생각대로 행하여 나의 뜻을 이룬다. / 너희 영과 육이 살아나게 급히 기도하자. 샬롬!

<축 도>

지금은 살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심령과 영이 살아나 주와 교통하고 일체 되어 대역사를 이루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심령과 영이 살아나도록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과 온 세계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